

# 현대 공장 급습 제조업 부흥에 타격 우려

## 외국 기업 투자 위축 “유연한 숙련 인력 비자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LG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사건을 두고 미국 내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제조업 부흥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UC데이비스 경제학과 조반니 페리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에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는 이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숙련 인력을 들여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및 반도체 공장은 기존 자동차 조립라인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과 설비 경험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엘런 휴스-크롬워는 “설비를 직접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고도의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외국 출신 숙련 근로자가 없이는 제조업 부흥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는 수백 명의 숙련 인력을 단기간 투입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없어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실정이다.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우리가 현대차를 불러들여 공장을 짓게 한 건 현대차만이 이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장 설비와 장비가 모두 해외에서 제작되는데, 이를 설치할 인력 역시 불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그룹 존 레티어리 대표는 “이번 공장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이 들어와 미국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의제가 성공하려면 오히려 더 유연한 숙련 인력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지아 현대공장 직원 한국 도착 구금 8일만에 전세기 귀국, “돌아왔다, 자유다” 외치기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8일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12일(한국시간) 오후 3시 23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인원은 한국인 316명을 비롯해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모두 330명이었다. 전날 오전 애틀랜타를 떠난 지 약 15시간 만의 귀환이다.



▲ 구금됐던 한국인 3백여 명 인천공항 도착했다. 사진=뉴스1

비행기에서 내린 근로자들은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체로 건강해 보였다. 마스크를 쓴 채 소지품은 최소화한 모습이었다고, 대부분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켜 지인들에게 무사 귀환을 알렸다.

입국장에는 “국민 여러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태극기와 함께 걸렸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근로자들 또한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박수로 화답했다. 일부는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치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곧바로 버스를 타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가족과 재회했다.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몸 상태를 살폈다. 어린 딸을 안고 뽀뽀하며 웃는 아버지, 수영이 덩수룩한 남편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아내의 모습에 주변에서도 눈시울을 붉혔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아빠와 게임하며 밤을 새우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현장에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도 나와 상황을 점검했으며, 가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착륙하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기다림을 이어갔다. 일부는 “앞으로 공장 어떻게 되나”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입국장 밖에서는 시민단체가 “트럼프는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ICE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항 일대에 100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확보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회사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기내식 대부분을 비빔밥으로 준비하고 간식과 에메티 키트를 넉넉히 제공해 피로한 귀국길을 배려했다.

# “대미 투자에 찬물 끼얹을 수도” 이 대통령, 대규모 이민단속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을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미국인이 관광비자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과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국 내 직접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계 설치와 생산 설비 구축에는 필수적으로 숙련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인

요청조차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워싱턴과 협상 중이며, 투자 관련 비자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추가 쿼터 확보나 새로운 비자 범주 신설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갑과 족쇄에 채워진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는 큰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다. 외교부는 귀국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수갑을 차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일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미국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토하면서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충격과 피로를 고려할 때 일단 귀국한 뒤 이후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STAR+ DENTAL**

라미라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픈 기념 특별**

**임플란트**  
\$1,200부터

**크라운**  
\$500부터

**GRAND OPENING**



**스타 플러스 덴탈 그랜드 오픈!**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 무료상담!**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714.576.5257** | 15862 Imperial Hwy., La Mirada, CA 90638

화, 금, 토요일 오픈합니다 9:00AM - 6:00PM